

연말이 데드라인...여수산단 석유화학 재편 속도내나

구윤철 부총리 “자율 구조조정 연말까지 마지막 골든타임” 최후통첩
3대 석유화학 산단 조율 지연...정부 사업개편 기업 맞춤형 지원 약속

정부가 올 연말을 집체한 석유화학업계의 회생가능 '데드라인'으로 최후 통첩하고, 자율적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압박했다.

정부는 올 들어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국내 3대 산단에 입주한 석유화학 기업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도, 자구책 마련 등에 별다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

울정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화학 업계가 진행하고 있는 자율 구조조정에 대해 "지금이 마지막 기회,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석유화학 업계가 이번 골든타임마저 허비하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 역시 조력자로만 남기는

어렵다"며 "자기 집만 지키려다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또 "일부 산단과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시장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계 스스로 약속한 기한이 다가고 있는 만큼 산단과 업계 전체가 나서 속도전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8월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올해 말까지 최대 370만 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기업별로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기로 정부와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10대 석유화학 기업들이 약

속한 '사업재편 계획' 제출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수·대산·울산 등 국내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들은 여전히 기업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대산 산단 소재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자율적 사업재편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울산산단은 대한유화,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3사가 재편 전략을 여전히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 간 NCC 통합 논의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산단에선 LG화학이 GS칼텍스측에 NCC 매각·합작회사 설립 등 통합 운영체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적 방안 등 기업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단 '골든타임' 내 기업들이 자율적 구조조정을 마무리 한다면 빨리 재편된 순으로 기업별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자구노력에 이어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먼저 사업재편을 추진한 산단·기업에 더 빠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수능 앞두고 수험생 필수템 할인
광주신세계 본관 8층 에피큐리언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서모스 보온도시락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 13일)을 앞두고 수험생을 위한 필수 아이템을 할인 판매한다. 수능 필수 준비물인 보온 도시락과 텀블러 등을 브랜드별로 20~60% 할인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올해 지역경기 전년보다 악화”

“지원 시책 매출 효과 10% 이하”
접근성 개선·금융지원 등 요구

광주 소상공인들이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다”는 절박한 신호를 보냈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지역경기를 ‘위축·둔화’로 판단했고, 제값 매출 개선도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으며 정책의 방식과 무게중심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심각한 경기 침체를 체감하는 상황에서 기존 지원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단순 지원을 넘어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4일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지역 소상공인 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원시책 효능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광주지역 소상공인 82.8%가 올해 지역 경기가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본인 사업장이 위축 또는 둔화됐다’는 응답도 73.6%에 달해, 지역 경제 전반과 개별 사업장 모두에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경기에 대한 긍정 평가는 2.7%, 사업장 경기에 대한 긍정 평가는 7.1%에 불과했다.

그나마 ‘광주 상생카드’나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 기존 지원시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점의 경우 매출 향상 도움(68.6%), 정책 만족도(69.9%), 상권 활성화 기여도(71.6%) 모두 긍정 평가가 높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지원시책(일반)으로 매출이 늘었다고 답한 소상공인의 55.4%가 ‘증가폭이 10% 이하’에 그쳤다고 답했으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역시 53.4%가 ‘10% 이하’ 증가에 머물렀다.

정책이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지속적인 불황으로 고객 감소’(60.3%) 등이 지목됐다.

소상공인들을 최우선 지원정책(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는 ‘금융·세제 지원’(41.6%), ‘전통시장·골목상권 환경 개선’(29.5%), ‘상인 공동마케팅 및 홍보 지원’(26.6%) 순으로 답했다.

또 응답자의 80.5%는 ‘골목상권 관리 전담 인력’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75.1%는 ‘현장형 골목상권 지원센터’ 도입이 절실하다고 응답했다.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은 “상권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과 전문 관리 조직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광주·전남 2%대

15개월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

지난달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오름세를 보이며 1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으로 하락하던 물가 상승률이 올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지역민의 장바구니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0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4로 전년 동월(114.93) 대비 2.3%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4년 7월(2.8%)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광주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힘입어 2%대에 첫 진입한 뒤 올해 들어서는 3·4월(1.9%), 5월(1.5%), 6월(1.9%), 7월(1.7%), 8월(1.4%) 등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9월 2.1%를 기록하며 2%대에 재진입했고, 지난달에는 상승폭마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

가지수도 전년 동월보다 2.2%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쌀(21.7%), 사과(23.6%), 굴(30.1%) 등 농축산 먹거리와 경유(9.3%), 휘발유(5.2%) 등 유가, 보험서비스료(16.3%) 등 서비스 비용 등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같은 기간 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115.64에서 118.38로 2.4% 상승했다. 전남 역시 15개월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2.3% 올랐다. 식품과 식품외의 품목이 각각 2.4%, 2.3% 상승했다.

지출 목적별로는 기타 상품·서비스(5.0%), 교통(3.9%), 식료품·비주류음료(3.1%) 등의 물가 상승폭이 컸다. 전남 역시 사과(20.1%), 쌀(13.7%), 돼지고기(7.5%) 등 먹거리를 비롯해 경유(8.3%), 휘발유(4.4%) 등 유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도 2.4%를 기록하며 15개월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0월 길었던 추석 연휴로 인해 관련 품목 물가 상승세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기아, 영국 모타빌리티와 PBV 보급 확대 나선다

내년 PV5 개조모델 현지 출시

기아가 영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 대상 리스 차량 운행사 모타빌리티(Motability)와 목적기반 모빌리티(PBV) 보급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모타빌리티와의 업무협약은 ‘모두가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이끌겠다는 기아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기아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기아 사옥에서 기아 송호성 사장, 모타빌리티 앤드류 밀러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 내 PBV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모타빌리티는 3만5000대의 휠체어용 차량(WAV), 9만4천대의 전기차(EV)를 보유하고 있고, 고객 수만 86만명에 달한다. 또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차 콘셉트 모델 ‘eVITA’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PV5 등 기아 PBV 라인업을 활용해 이동 약자용 모빌리티의 전동화 전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아는 MOU에 따라 모타빌리티에 PV5 기본형 및 PV5 WAV 모델을 공급하고, 모타빌리티는 내년부터 영국 현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송호성 기아 사장과 앤드류 밀러 모타빌리티 CEO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기아 사옥에서 영국 내 PBV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제공>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아는 전동화 WAV 개발 리더십을 확보하고, 모타빌리티는 중·장기적 전동화 전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GICON GCC사관학교 2기 콘텐츠 인재 106명 배출

7개월 간 948시간 기초·심화교육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난달 28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개최한 ‘GCC사관학교 2기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GCC사관학교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GICON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대표 청년 교육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실감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GCC사관학교 2기는 106명의 지역 인재가 수료했다. 수료생들은 7개월 간 948시간의 기초·심화교육 및 취업 멘토링을 이수했다. 특히 25개 기업과 협력해 추진된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3개월 간 실무 과제를 수행하며 현장 중심 역량을 키웠다.

GICON은 수료생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콘텐츠 기업과의 연계 강화 및 미래 콘텐츠 산업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달 28~29일 ‘GCC사관학교 2기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첫 날에는 ‘빛나는 인재들의 성장’을 주제로 2기 교육생을 위한 수료식이 진행됐으며, 수료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만든 실감형 콘텐츠, 게임, 웹툰 등을 전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에게는 수료생들의 작품 및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인재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2일 차에는 웹툰 ‘정년야’의 스토리 작가 서이레

작가가 ‘장작 소개 탐색과 서사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업 협력을 결합한 GCC사관학교가 광주 대표 청년 인재 양성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며 “GCC사관학교 출신 인재들이 광주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대부업도 보이스피싱 예방 본인 확인 의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백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업무를 할 때 반드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및 피해자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금타 3분기 영업이익 1085억원...전년 동기 대비 22.6%↓

코스피 상장사 금호타이어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8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2.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4일 공시했다. 매출은 1조113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다. 순이익은 915억원으로 0.7% 줄었다. 금호타이어의 전년 대비 영업이익 감소는 광주공장 화재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4121.74	(-100.13)
↑ 코스닥	926.57	(+12.02)
↓ 금리(국고채 3년)	2.729	(-0.012)
↑ 환율(US D)	1437.70	(+8.90)
〈오후 5시 33분 기준〉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